

#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매체사용의 차이 연구

이성란\*  
의료정보학과\*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and Media Use According to the Addiction of Communication Media

Seong-Ran Lee\*

Dept. of Medical Inform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매체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3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이동전화 사용시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중독군은 39.2%, 비중독군은 4.0%로 중독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X^2=8.51$ ,  $p=.00$ ). 둘째, 우울정도는 자주 우울한 경우가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4.0배 유의하게 높았다(OR=4.0, 95% CI=2.4-36.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적 사용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 및 긍정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중독, 정신건강, 커뮤니케이션, 매체,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and media use according to the addiction of communication media. Data collection was surveyed using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by 250 subjects from March 12 to May 13, 201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with regard to mobile phone use time for communication in the use of over 2 hrs, subjects replied that addictiv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addictive group( $X^2=8.51$ ,  $p=.00$ ). Secondly, in case often depression, the risk ratio of addictiv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4.0 times than non-addictive group(OR=4.0, 95%, CI=2.4-36.9). In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the addictive use of communication media, it is needed to make various environment such as sound life rhythm maintenance, systemic and periodic education.

**Key Words** : Addiction, Mental health, Communication, Media, University students

Received 8 May 2013, Revised 12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Seong-Ran Lee(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lsr2626@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다[1-3].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전체 인구의 92.4%에 달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사회의 발전단계마다 나타났던 우편, 전신, 전화, 텔레비전 및 컴퓨터에 이은 뉴미디어로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의사소통 매체가 대인관계에 있어 사교적이고 쾌활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가장 보편적인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 매김하면서 유해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즉 이동전화, 컴퓨터 등의 전자파가 인체의 기능의 해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적 또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없으면 73%가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중독증상의 일종인 금단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4-6]. 200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조직적인 이동전화 이용의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시험시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4]. 이러한 사례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병리적 징후들이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인관계, 정신적인 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즉 대인관계의 회피적이고 고립적인 유형이 중독적인 성향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7-9].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과다한 사용 또는 의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 성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척도의 개발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매체사용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고 정신건강을 향상하는데 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독군과 비중독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기준은 중독 여부와 관련된 설문은 총 18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0점 미만은 비중독 성향군, 50점 이상은 중독 성향군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중독 상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중독군과 비중독군으로 구분한 이유는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증명을 하는데 세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적 사용을 학교 현장 및 가정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의존적 경향은 중독군이 56.8%로 비중독군의 21.6%로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X^2=7.91$ ,  $p=.00$ ).

### 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을 통해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임의로 할당한 자료 총 273부로 이중 부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최종 250부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기존에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중독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8]. 일반적인 특성 문항으로 성별, 학년,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 TV 평균시청 시간, 매체 사용기간 및 이동전화 구입횟수 등의 6개,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동전화 사용시간, 소셜 네트워크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평균 문자메세지 횟수 및 번호저장 횟수 등의 5개, 매체 사용과 관련된 정신적 문항은 우울증, 자아존중감, 충동성 등 3개, 매체사용 중독에 따른 건강관련요인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2개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사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값이 건강관련요인은 0.83, 정신적 요인은 0.79이었으며 구성타당도는 건강관련요인은 0.91, 정신적 요인은 0.85이었다.

〈Table 1〉 Addictive symptom due to media use between addictive and non-addictive groups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X <sup>2</sup>	p
Dependence	71(56.8)	27(21.6)	7.91	.00
Non-dependence	54(43.2)	98(78.4)		
Total	125(100.0)	125(100.0)		

### 2.4 연구방법

본 연구는 SAS 9.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이용관련 요인, 정신건강관련 요인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사용 반응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X<sup>2</sup> test를 시행하였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사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의한 변수로 선택된 독립변수들에 대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중독군은 56.8%, 비중독군은 52.0%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X<sup>2</sup>=9.72, p=.27).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기간은 중독군의 경우 3시간 이상이 49.6%, 비중독군이 23.2%로 중독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X<sup>2</sup>=12.68, p=.0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X <sup>2</sup>	p
Gender				
Male	54(43.2)	60(48.0)	9.72	.27
Female	71(56.8)	65(52.0)		
Grade/yrs				
1	45(36.0)	41(32.8)	15.26	.92
2-3	33(26.4)	29(23.2)		
4	47(37.6)	55(44.0)		

Daily internet use time/hrs.				
<1	37(29.6)	52(41.6)	8.71	.04
1≤X<2	40(32.0)	33(26.4)		
2≤X<3	25(20.0)	21(16.8)		
≥3	23(18.4)	19(15.2)		
TV watching time/daily.				
<1	71(56.8)	69(55.2)	10.45	.69
1≤X<2	24(19.2)	40(32.0)		
2≤X<3	18(14.4)	7(5.6)		
≥3	12(9.6)	9(7.2)		
Use period of media/yrs.				
<1	14(11.2)	38(30.4)	12.68	.02
1≤X<2	30(24.0)	36(28.8)		
2≤X<3	19(15.2)	22(17.6)		
≥3	62(49.6)	29(23.2)		
Mobile phone buying times				
<1	42(33.6)	51(40.8)	9.74	.05
1≤X<2	31(24.8)	37(29.6)		
2≤X<3	18(14.4)	21(16.8)		
≥3	34(27.2)	16(12.8)		
Total	125(100.0)	125(100.0)		

### 3.2 매체 사용과 관련된 요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사용과 관련된 요인은 <표 3>과 같다. 이동전화 사용시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중독군은 39.2%, 비중독군은 4.0%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X<sup>2</sup>=8.51, p=.00). 소셜네트워크 사용이 2시간 이상인 경우가 중독군에서 54.4%, 비중독군에서 21.6%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다(X<sup>2</sup>=6.97, p=.00).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mmunication media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X <sup>2</sup>	p
Mobile phone use time/hrs.				
<1	31(24.8)	87(69.6)	8.51	.00
1≤X<2	45(36.0)	33(26.4)		
≥2	49(39.2)	5(4.0)		
Social network use time/hrs.				
<1	35(28.0)	79(63.2)	6.97	.00
1≤X<2	22(17.6)	19(15.2)		
≥2	68(54.4)	27(21.6)		
Kakao talk use times/hrs.				
<1	12(9.6)	23(18.4)	13.48	.06
1≤X<2	40(32.0)	75(60.0)		
≥2	73(58.4)	27(21.6)		

Average message service times				
<20	30(24.0)	84(67.2)	9.15	.00
21-50	43(34.4)	32(25.6)		
≥51	52(41.6)	9(7.2)		
Storage of phone number				
<50	20(16.0)	45(36.0)	11.82	.04
51-99	56(44.8)	63(50.4)		
≥100	49(39.2)	17(13.6)		
Total	125(100.0)	125(100.0)		

### 3.3 매체의 중독사용과 관련된 정신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사용과 관련된 정신적 요인은 <표 4>과 같다. 우울정도는 자주 우울하다는 경우가 중독군은 16.8%, 비중독군은 6.4%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X^2=5.92, p=.03$ ). 충동성은 자주 충동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독군이 33.6%, 비중독군이 15.2%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X^2=6.74, p=.00$ ).

<Table 4> 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mmunication media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X^2$	p
Depression				
Hardly ever	34(27.2)	52(41.6)	5.92	.03
Sometime	70(56.0)	65(52.0)		
Often	21(16.8)	8(6.4)		
Self-respect				
Hardly ever	35(28.0)	13(10.4)	11.08	.02
Sometimes	78(62.4)	92(73.6)		
Often	12(9.6)	20(16.0)		
Impulsiveness				
Hardly ever	20(16.0)	52(41.6)	6.74	.00
Sometimes	63(50.4)	54(43.2)		
Often	42(33.6)	19(15.2)		
Total	125(100.0)	125(100.0)		

### 3.4 매체의 중독사용에 따른 건강관련요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사용에 따른 건강관련요인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친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응답자가 중독군에서 67.2%, 비중독군이 53.3%로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X^2=11.74, p=.07$ ). 반면 부정적 요인은 중독군은 경제적 부담이 63.2%, 비중독군에서는 60.7%로 중독

군이 비중독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X^2=8.29, p=.05$ ).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according to the addictive use of communication media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X^2$	p
Positive factors				
Contact	101(80.8)	110(90.2)	11.74	.07
Intimacy	84(67.2)	65(53.3)		
Loneliness	36(28.8)	14(11.5)		
Stress	32(25.6)	8(6.6)		
Information	29(23.2)	27(22.1)		
Others	5(4.0)	3(2.5)		
Negative factor				
Economic load	79(63.2)	74(60.7)	8.29	.05
Academic	57(45.6)	39(32.0)		
Axiety	50(40.0)	21(17.2)		
Meeting time reduction	23(18.4)	15(12.3)		
Health	15(12.0)	12(9.8)		
Others	3(2.4)	1(0.8)		

† multiple answer

### 3.5 매체 중독사용의 영향요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 6>과 같다. 이동전화 사용기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4.3배 유의하게 높았다(OR=4.3, 95% CI=1.6-32.1). 의사소통 매체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27.5배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OR=27.5, 95% CI=2.5-43.8).

<Table 6> Factors affecting the addictive use of communication media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OR	95% CI
Use period of media/yrs.				
≤1	14(11.2)	38(30.4)	1.0	
1≤X<2	30(24.0)	36(28.8)	2.3	0.8-16.7
≥2	81(64.8)	51(40.8)	4.3	1.6-32.1
Mobile phone use time/hrs.				
<1	31(24.8)	87(69.6)	1.0	
1≤X<2	45(36.0)	33(26.4)	3.8	0.9-16.2
≥2	49(39.2)	5(4.0)	27.5	2.5-43.8

Internet use time/hrs.					
<1	37(29.6)	52(41.6)	1.0		
1≤X<2	40(32.0)	33(26.4)	1.7	0.5-6.3	
≥2	48(38.4)	40(32.0)	1.6	2.5-18.1	
Storage of phone number					
<50	20(16.0)	45(36.0)	1.0		
51-99	56(44.8)	63(50.4)	2.0	0.7-15.9	
≥100	49(39.2)	17(13.6)	6.5	1.5-11.3	
Average message service times					
<20	30(24.0)	84(67.2)	1.0		
21-50	43(34.4)	32(25.6)	3.8	0.9-7.1	
≥51	52(41.6)	9(7.2)	16.2	3.2-40.5	
Social network use time/hr.					
<1	35(28.0)	79(63.2)	1.0		
1≤X<2	22(17.6)	19(15.2)	2.6	0.2-5.8	
≥2	68(54.4)	27(21.6)	5.7	2.5-13.9	

### 3.6 매체 중독사용의 정신건강 영향요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사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7>과 같다. 우울정도는 자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4.0배 유의하게 높았다(OR=4.9, 95% CI=2.4-36.9). 충동성은 자주 충동성을 느끼는 경우가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5.7배 유의하게 높았다(OR=5.7, 95% CI=4.2-46.1).

<Table 7> Effect of the addictive use of media on mental health

Variables	Addictive group	Non-addictive group	OR	95% CI
	N=125	N=125		
Depression				
Hardly ever	34(27.2)	52(41.6)	1.0	
Sometimes	70(56.0)	65(52.0)	2.1	0.5-8.2
Often	21(16.8)	8(6.4)	4.0	2.4-36.9
Self-respect				
Hardly ever	35(28.0)	13(10.4)	1.0	
Sometimes	78(62.4)	92(73.6)	0.3	0.9-4.5
Often	12(9.6)	20(16.0)	0.2	0.3-6.7
Impulsiveness				
Hardly ever	20(16.0)	52(41.6)	1.0	
Sometimes	63(50.4)	54(43.2)	3.0	0.7-8.9
Often	42(33.6)	19(15.2)	5.7	4.2-46.1

## 4. 논의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매체의 중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매체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1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적 사용군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비중독 사용군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3,10]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같은 통신에 대한 중독적 사용 경향이 높았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인터넷에 몰입하는 집단이 비몰입하는 집단보다 의사소통 매체의 중독성이 강한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청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중독으로 인터넷과 이동전화 중독은 두 매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독적 사용으로 이끄는 요인이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므로 동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 매체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동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4,11,12]. 이는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변수는 매체 이용기간, 이동전화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1일 평균 문자 사용횟수, 번호저장 및 소셜네트워크 사용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전화, 인터넷 등의 의사소통 매체 사용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상태와 우울상태가 자주 우울한 경우와 충동성이 자주 있는 경우 의사소통 매체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 중 우울성과 충동적 경향이 의사소통 매체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중독적인 행동기전에는 다른 중독장애와 공통적으로 충동통제 결핍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13-15]. 이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대학생들의 친구가 되어 의사소통 매체를 사용할 때 사 용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이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동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용의 중독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 긍정적인 측면의 다양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참여자 표집에서의 한계가 있다. 대학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계적 검증을 하기에는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표집에 있어 전 지역에 걸친 표집이 아닌 일부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중독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자기통제력의 향상 및 대안활동 경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과몰입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1] Green, M.(2011), Do mobile phones pose an unacceptable risk? Adequacy of the Evidence, Risk Management, Vol. 48(11), pp. 40-48.

[2] Palen, Leysia an Salzman, Marilyn and Youngs, Ed.,(2001),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Personal Ub Comp. 5(1), pp. 109-122.

[3] Katz, J.(2009), Connections : social and cultural studies of the telephone in American lif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4] Young, K. S.(2006),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 79(3), pp. 899-991.

[5] Rozin, P. and Stoess, C.,(2003), Is there a general tendency to become addicted?, addictive behaviors, 18(1). pp. 81-87.

[6] Kraut, R., Pateerson, Michae, Lundmak, V., Kiesker, Sara, Mukopadyay, T., & Sherlies, W,(200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pp. 1021-1025.

[7] Shapira N. A., Goldsmith T. D., Kechk P. E., Jr. Khosla U. M. & Mcelroy S. I.(2000),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 Affect disorder, 55(4), pp. 268-271.

[8] Brenner V. A(2006), Initial report an the online assessment of internet addiction : the first 30 days of the internet usage, marquett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t Buffalo.

[9] Stein, D.(2007), Internet addiction, Internet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54(8), pp. 41-48.

[10] Elliot, R.(2004), Addictive consumption : function and fragmentation in postmodernity, Journal of Consumer Policy, 17(2), pp. 163-167.

[11] Grant A., Guther, K, K., & Ball-Rokeack, S. J(2011), Television shopping a media system dependency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8(6), pp. 775-797.

[12] Horton. D., Wohi., R. R.(2006),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 observation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3), pp. 216-228.

[13] Levy M. R.(2009), Watching TV news as a para-social interaction, Broadcating, 23(10), pp. 69-80.

[14] McDonald, W. J.(2005), Home shopping channel customer segments : a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Direct Marketing, 9(4), pp. 59-65.

[15] Richins, M. L(2007), Media, materialism and human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J.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4(3), pp. 356-357.

## 이 성 란(Lee, Seong Ran)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생활과학사)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0년 8월 : 서울 가톨릭의대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7년 9월~현재 :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의무기록, 기초의학
- E-Mail : lsr2626@naver.com